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8.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8. 3

라. 상정일자 : 1995. 8.12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고유 지명찾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행정지명 한문표기들 본래 고유지명으로 환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

현 행		
곰	丁	洞
곰	丁	區

⇒

변 경		
梧	亭	洞
梧	亭	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명칭변경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과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 한문표기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무원으로 적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적으며 공무원 기존인력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제실태조사에서 한건만 발견됐습니까?	○ 한건입니다.
○ 실태조사는 종결됐습니까?	○ 종결됐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의안번호	9
의 결 년 월 일	95. 8. 12 (제40회)

제안년월일 : 1995. 8. 3

제 안 자 : 부천시장

1. 제안이유

광복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교유 지명찾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행정지명 한문표기를 본래 고유지명으로 환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

현	행
곰	丁 洞
곰	丁 區

⇒

변	경
梧	亭 洞
梧	亭 區

3. 부천시 지명위원회 개최결과

○ 梧丁洞 → 梧亭洞, 梧丁區 → 梧亭區로 원안가결

※ 개최내용 : 별 첨

4. 내 용

□ 대상지역 일반현황

○ 오 정 동

- 가구 및 인구수 : 6,720가구 21,547명

- 면 적 : 6.16km²

- 행정구역 : 31개동 151개반

○ 오 정 구

- 행정구역 : 7개동 238통 1,289반

- 인 구 수 : 182,817명

- 가 구 : 58,537가구

- 면 적 : 19.22km²

□ 명칭변경 역사적 유래

- 오정동에는 옛날부터 오동나무 정자가 있었으므로 머귀정이라, 오동정이 또는 오정이라 하였는데 부평군때에는 상오정면의 오정리 지역과 주화곶면의 대장리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오정리라 하여 부친군 오정면지역에 속하였다가 1973년 부친군이 폐지되고 소사읍일원이 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김포군에 편입되었고 1975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부천시에 편입되어 대장동을 합하여 오정동이 되었으며 93. 2. 1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오정구가 승인되어 오정구를 개칭

※ 오정의 명칭에 대한 설

- 고리울 강장곡에 정착한 변씨문중 조상중 조선 인조때 오위도총부 도총관(정2품)을 지낸 변삼근(卞三近)이란 분의 아호가 오정(梧亭)으로서 오정은 변삼근의 아호에서 따온 명칭이라 하며 변삼근의 호를 마을명으로 하였는지 마을명에서 호를 따왔는지는 확실치 않음

□ 명칭변경이유(梧亭이 梧丁으로 바뀐 사유)

- 현재 梧丁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은 1914년 일제가 부친군을 만들때 上梧亭面(상오정면)과

下梧亭面(하오정면)을 통합하여 오정면으로 하면서부터 표기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梧亭(오정)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이지역에 오동나무가 많았고 오동나무를 이용하여 정자를 여러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비롯된 명칭이며, 이 명칭을 인조때 오위도총관을 지낸 고강동 출신 下三近(1579년~1648년)과 삼정동 출신 박호가 자기가 태어난 면 이름을 따서 아호로 삼기도 하였다. 현재 고강동에는 梧亭公遺碑銘(오정공유비명)이 있다.

이렇듯 오정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채 80년을 넘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한 것을 아무런 여과작용을 거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더욱이 “丁”에 대해 사마천이 지은 <史記>의 「시법해」에 보면 “의리를 능히 이루지 못한 것”을 “丁”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제가 작의적으로 조작한 명칭으로 오정을 한자로 표기하려면 반드시 전통을 지닌 옛 명칭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梧丁洞은 梧亭洞으로 梧丁區는 梧亭區로 표기해야 된다고 사료됨

□ 근거자료

- 한국사료총서 제20여지도서(上) : 국사편찬위원회
- 지명유래
- 부천시사
- 돌광구지에서 부천까지 : 부천역사연구소장 최현수 지음

부천시지명위원회 심의의결서

번 호	제 목	제 안 자	심 의 요 지	심 의 결 과
95-1	행정지명 한문표기 변경	시정과장	행정지명 梧丁(오정)을 梧亭(오정)으로 변경 표기	원 안 가 결

1995. 7. 19

위와 같이 의결함

직 책	성 명	현 직	서 명	의 건
위 원 장	이 해 선	시 장	별첨참조	가
위 원	최 은 휴	문협부천지부장, 시인	"	가
"	박 광 용	카톨릭대학교성심교정교수	"	가
"	오 환 일	유한전문대학교수	"	가
"	민 충 환	부천전문대학교수	"	가
"	최 현 수	부천역사연구소장	"	가

韓國史料
叢書第二十

輿地圖書 上

國史編纂委員會

555

富平府水原鎮管所屬邑仁川東至峰川縣三十里至陽川縣三十里

五里南至安山郡界四十八里至仁川府界十五里西至大海十四里北至金浦郡界十七里至通津府界三十里

十六里泉 京都五十五里半日程
西平水 營一百二十里一日半程

坊里	府內	面	百上	八十下	口二坊	女二百	五百十四	五十八戶	十三內男	三口另三	東面	坊八
----	----	---	----	-----	-----	-----	------	------	------	------	----	----

男二百六十五口女二百九十六口堂山面五坊自

一里一百三十六戶男口汪火串面五坊自官門東串十五里

一百七十三戶男三百一十女三百二十三口
上梧亭面七坊自官門東南半二十里一

百二十六	戶男二百七	下梧亭面	七坊自官門
十三口	女二百三十四	南	車二十里一

三百八十四戶內男三百
三女三百五十口 水吞面
三十里一百八十五

中男三十一

口女三百七十一口王毛面里一百六十四戶肉男二

三百十九口	石川面	百九十六口	男三百七十一
-------	-----	-------	--------

四百九十口
同井面
六十二戶
男二百九十口
女一百一十口

十六口	西	內男二百八十八口	女二百八十一口
-----	---	----------	---------

馬場面 一百四十口 大 一百六十口 石市面

戶男五百六十五口女六百四十六口
毛月帛面

內男坊五十七口
女坊六十八口
黃魚面坊七

男四百六十三口女六百三十二口以上十五而

人戶二千九百二十三戶內男四千九百二十八口

女五千九百七十口以己卯帳籍為準

牙道

去安山郭之路北至黃店場坪十三里外有金浦郭

10-1

建五浩草 本高句麗王夫吐郡新羅改長堤高麗初改爲樹州

成宗五圍縛使穆宗罷之顯宗九年改知州事顯宗改爲宰

南都護府高宗改稱桂陽忠烈王陞吉州牧忠宣王二年遷

諸牧改今名降為府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

世宗二十年降為縣今二十八年復舊無山十一年教府人官

者金甌孫草本府一年復舊

肅宗十一年改管魚鹽稅前管將二十四年

章凌放火罪人在甬成胎生邑降焉縣監十年復爲

郡名主失出 夏是 州 安南 建陽 吉州

卷三
三面皆濱水也

平月 節平 地

一、行軍 十六
二、營 二十
三、中軍 三十
四、前 十

人用監千人 兵監六人 中軍軍官人 持杖一人 招前九

山川
主場山在府北二里鎮山一名安南山南有仁川一貢

在府西
在府西
在府東十里
源出狄谿山
入谿

十五里直河又東流入陽州縣北渚

直隸金浦縣馬松浦人齊汝津治十四里

[illegible]

六九